

Global ROTCian's Lifestyle Magazine

Leaders' World

April 2024



COVER STORY

아시아 NO.1 '영림원소프트랩'
(주)영림원소프트랩 권영범(15기) 대표이사

ERP 선구자에서
AI ERP 대표주자로
글로벌 시장 진출 본격화

MAIN NEWS

- 김수연(18기) (주)알에이치포커스 회장
'2023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품질경영
- 대한민국 ROTC 중앙회
'ROTC 창설 제62주년 기념식' 개최
- 강철규(6기)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이사장
국민을 즐겁게 하는 정치-
JOY MAX를 새로운 발전목표로 하자
- 정용상(15기)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3.1 독립운동 정신으로 국가대개혁을

TREND 향저우, 아시안게임

CLOSE-UP 아이오닉 5 N 세계 최초 공개



권영범(15기) (주)영림원소프트랩 대표이사

주요 약력

- 1993 ~ (주)영림원소프트랩 대표이사
- 1988 ~ 1993 (주)큐닉스데이터시스템 사업부장
- 1982 ~ 1988 과학기술원 시스템공학센터 선임연구원
- 1979 ~ 1981 삼성전자(주)
- 2005 ~ 2006 미국 USC MBA
- 2002 ~ 2003 뉴욕주립대 기술경영 석사
- 1973 ~ 1977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

주요 경력사항

- 2015 정부지원 R&D사업 GLOBAL CREATIVE SOFTWARE 개발과제 총괄 책임
- 2012 국가지원 개발프로젝트 WORLD BEST SOFTWARE 통합 스마트 ERP 개발 총괄 책임
- 2007 K-SYSTEM GENUINE 개발 총괄 CTO
- 2003 롯데칠성음료 ERP 프로젝트 총괄 PM
- 1999 롯데제과 ERP 프로젝트 총괄 PM
- 1997 한국형 ERP K-SYSTEM 개발 총괄 설계 및 감독
- 1994 유공해운 다운사이징 개발 책임
- 1991 대한페인트잉크 경영정보시스템 개발 책임
- 1987 서울올림픽 전산시스템 설계
- 1985 아시안게임 전산시스템 설계
- 1983 전국체전 전산화 실무책임

주요 수상경력

- 2011 12 S/W 산업인의 날 은탑훈장 수상 (MKE 주관)
- 2006 12 제7회 S/W 산업인의 날 (대통령 표창)
- 2024 03 '2024 행복더함 사회공헌 캠페인'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 02 '제3회 소프트웨어 아너스 어워드' 공로상 수상
- 01 고용노동부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2024~2026)
- 2023 10 '2023 한국품질만족지수' ERP 부문 1위
- 산업별 ERP K-SYSTEM ACE / AI 클라우드 ERP SYSTEMEVER
- 06 '2023 공공부문 SW 어워드' 수상
- 02 뉴시스 주최, '2023 일자리 大賞' 고용노동부장관상 수상
- 01 고용노동부 주관, '2023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 2022 12 여성가족부 주관, '2022 가족친화 인증기업' 선정
- 12 중소기업경영혁신대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협회장상
- 02 2022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 2021 12 무역의 날 유공표창장-KOTRA 사장상
- 11 ICT 기금사업 성과보고회 글로벌 진출 분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 10 스마트팩토리 어워드 ERP부문 기업혁신 대상
- 02 2021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 2020 12 4차 산업혁명 선도기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수상
- 12 제7회 대한민국 SW제품 품질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4 12 알하기 좋은 SW기업 최우수상 수상
- 2013 12 WBS(WORLD BEST SOFTWARE) 과제 우수과제 선정
- 2011 12 S/W 산업인의 날 은탑훈장 수상
- 2006 12 제7회 S/W 산업인의 날 [대통령 표창]
- 10 제7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정보통신부장관 표창]
- 2005 12 제9회 한국 E-비즈니스 대상 [산자부장관상 수상]
- 2004 12 제8회 한국 E-비즈니스 대상 특별상 수상
- 03 제31회 상공의날 산자부장관 표창 수상
- 2003 12 중소기업 IT화 대상 중소기업공단 이사장상 수상
- 2001 05 한국전자상거래 대상 최우수상 수상
- 03 디지털리더 50인 선정
- 02 매경 2001 디지털기술대상 중소기업청장상 수상



아시아 NO.1 '영림원소프트랩'
(주)영림원소프트랩 권영범(15기) 대표이사

ERP 선구자에서 AI ERP 대표주자로 글로벌 시장 진출 본격화

“30년 동안 ERP 한 우물만 파 왔습니다.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이 경영을 더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고객의 기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국내의 대표적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개발 및 구축기업인 (주)영림원소프트랩이 기업 문화를 이끄는 데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도구라 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손쉽게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기업문화 혁신 앱 스토어’를 확장해 갈 예정입니다.”

컴퓨터가 미래를 뒤바꿀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다는 가치를 미리 알아본 권영범 대표이사는 당시 생소한 분야였던 소프트웨어(SW)를 개발하는 꿈을 꾸었다. 그 꿈은 회사 창업하고 어느덧 30주년을 맞이했고, 국내의 대표적인 ERP 개발 기업이 되었을 뿐 아니라 우수한 경쟁력을 갖춰 세계무대로 도약할 수 있는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했다.

창업 초기, 국내의 기업 정보시스템은 거대 글로벌 기업들이 주도하는 대기업 대상의 ERP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중소기업들의 정보시스템 접근성은 현저히 낮았고, 중소기업에 적합한 기업 정보

시스템의 필요성은 외면당해왔다.

그러나 (주)영림원소프트랩은 많은 중소기업들의 정보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1997년 국내 최초로 한국형 ERP 패키지인 ‘K-System’을 개발해 공급했고, 클라우드 시대가 도래한 2015년에는 클라우드 SaaS(Software as a Service) ERP ‘SystemEver’를 런칭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내 중소기업의 기업 정보시스템의 역사와 함께 성장하고 있는 (주)영림원소프트랩은 현시대가 요구하는 수평적 개인주의적 기업문화에 맞춰 탈 권위적 수평조직 및 다양성 등 기업 구성원이 중요시하는 가치에 부합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새로운 앱 개발을 지도하는 일에 중점을 두고 있고, 기업문화 혁신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혁신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뉴노멀시대, 기업의 미래를 결정지을 새로운 경쟁력의 기준으로 등극시킨 국내 ‘ERP 전문가’ 권영범 대표이사를 통해 끊임없이 성장하는 (주)영림원소프트랩의 특별한 비즈니스 전략을 살펴본다.

Editor 최상선 Photographer 이인영



2023 영림원소프트랩기업문화 혁신 컨퍼런스



2023년 11월 일본 오사카에서 진행된 30주년 기념행사

ERP 시장의 흐름을 바꿔놓은 시작

서강대학교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1979년 삼성전자 컴퓨터사업부에 입사한 권영범 대표이사. 그 당시 우리나라에 컴퓨터를 도입하기 시작한 초창기로 막연하지만, 컴퓨터가 미래를 뒤바꿀 엄청난 위력을 가졌다고 생각해 컴퓨터사업부에 지원했다고 한다. 그렇게 소프트웨어를 독학으로 공부하며 13년 동안 소프트웨어 분야에 몰두하고 마침내 1993년 (주)영림원소프트랩을 창립했다.

“1993년 (주)영림원소프트랩을 창립하기 전까지 13년 동안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일했습니다. 그 당시 소프트웨어 사업은 거의 고객사가 요구하는 기능을 수주 개발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밤샘 작업을 수시로 행하는 열악한 사업 환경에

놓여 있었죠. 소프트웨어 분야를 공부하고, 일을 하면서 한 번 개발한 프로그램을 여러 곳에 파는 것이 소프트웨어 사업의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개발해서 팔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주)영림원소프트랩을 창업하게 됐습니다.”

창립 초기, 국내의 ERP 시장은 거대 글로벌 기업들이 주도하여 대기업을 대상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의 ERP 접근성은 현저히 낮았고, 중소기업의 필요성은 외면당하는 현실이었다. (주)영림원소프트랩은 이러한 ERP 시장의 국내 상황을 파악하고 중소기업들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1997년 국내 최초로 한국형 ERP 패키지인 ‘K-System’ 개발에 성공하여, 시장에 공급하였다. 또 개발부터 5번의 업그레이드를 직접 주도하여 계속해서 고품질의 제품을 선보였다.

“ERP 제품 개발 최초부터 다섯 번의 주요 업그레이

“30년 동안 ERP 한 우물만 파 왔습니다.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이 경영을 더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고객의 기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국내의 대표적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개발 및 구축기업인 (주)영림원소프트랩이 기업 문화를 이끄는 데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도구라 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손쉽게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기업문화 혁신 앱 스토어’를 확장해 갈 예정입니다.”

드 프로젝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PM(Project Manager)의 역할을 제가 직접 맡아서 진행했기에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개발 진행,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목 하나하나까지 검토하는 설계 중심의 역할을 수행했기에 업그레이드라는 연속성 측면에서도 유리했고, 동일한 사람이 수행함으로 제품에 대한 이해, 역량, 경험이 쌓이고, 의사 소통 문제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이고 고객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면서 더 좋은 ERP를 만들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위기는 바로 성장의 기회다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위기는 찾아오기 마련이지만, (주)영림원소프트랩의 위기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



2023년 11월 일본 오사카에서 진행된 30주년 기념행사



다. 창립 2년 차에 언제 문을 닫아야 하는지 걱정에 휩싸였다. 하지만 위기를 뒤집으면 기회가 되는 것을 권영범 대표이사는 알고 있었다. “위기는 창립 2년 차에 찾아왔습니다. 창립 첫해에 목표로 했던 윈도우용 개인정보관리 SW 패키지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들어서면서 매년 두 배 이상씩 성장하던 SW 패키지 유통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개당 10만 원 내외의 SW를 무상으로 끼워 팔아 SW 사업의 가치가 추락하게 된 것입니다. 언제 회사 문을 닫아야 할지 걱정 가득한 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창립 이전 다운사이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창립 멤버들이 있는데 회사 문을 닫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오기가 생겼고, 다행히 유공해운(SK해운)의 경영정보시스템 다운사이징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목표보다 두 달 먼저 프로젝트를 끝내는 쾌거에 힘입어 많은 수익을 내면서 다시 회사

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국내에서 최초로 ERP 패키지를 출시하는 밑거름이 되어 회사를 성장시키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위기와 기회 속에서 ‘경영을 더 잘하게’라는 슬로건으로 지난 30년 동안 기업의 요구와 필요에 맞는 다양한 ERP를 개발하여 기업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경영을 도운 (주)영림원소프트랩은 이렇게 국내에서 ERP라는 한 사업 분야를 개척하고, 탄탄한 입지를 다져왔다.

**미래지향적인
기업 경영을 꿈꾸며...**

권영범 대표이사는 오래도록 좋은 회사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좋은 기업문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스스로 CCO(Chief Cultural Officer)를 자칭하며, 현대가 요구하는 수평적, 개인주의적 기업문화에 맞춰 탈권위적 수평 조직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비

전강대학교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1979년 삼성전자 컴퓨터사업부에 입사한 권영범 대표이사. 그 당시 우리나라에 컴퓨터를 도입하기 시작한 초창기로 막연하지만, 컴퓨터가 미래를 뒤바꿀 엄청난 위력을 가졌다고 생각해 컴퓨터사업부에 지원했다고 한다. 그렇게 소프트웨어를 독학으로 공부하며 13년 동안 소프트웨어 분야에 몰두하고 마침내 1993년 (주)영림원소프트랩을 창립했다.

전을 제시하고 있다. “제가 2014년에 회사 조직을 팀장 없는 자율 조직으로 확 바꿨습니다. 그에 반발해서 그만둔 임원과 팀장이 여러 명 있었을 정도로 충격적 조치였죠. 그런데 오히려 그다음 해부터 성장률이 그 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회사 경영에 크게 관여하지 않아도 견실한 성장을 이루고 잘 가고 있습니다. 또 (주)영림원소프트랩에서는 ‘영웨이(永-WAY)’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목적을 중시하며, 주도적인 삶을 살자’는 기업 핵심 가치를 직원들

의 일상생활까지 확장되도록 임직원 영웨이협의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큰데 회사가 정해 놓은 틀 안에서 굳어지는 건 회사 발전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영림원소프트랩은 Flexstudio 2.0, EverAsk 등 기업 경영과 기업문화를 돕는 플랫폼을 출시하고, 2023년 8월에는 AI 혁신 콘퍼런스를 개최하면서 신제품 ‘K-System AI’를 선보이는 등 혁신적인 기업문화, 미래 경영에 대한 환기를 일으키며, 다방면으로 기업 경영을 위해 힘



영림원소프트랩
2023 영림원소프트랩 기업문화 혁신 컨퍼런스
경영을 더 잘하게
기업문화 혁신 앱 개발 플랫폼의 확장
기업문화 혁신을 위한 경영을 더 잘하게 하는 제 2의 플랫폼으로!

2023 영림원소프트랩
기업문화 혁신
컨퍼런스
경영을 더 잘하게
기업문화 혁신 앱 개발 플랫폼의 확장
기업문화 혁신을 위한 경영을 더 잘하게 하는 제 2의 플랫폼으로!

2023 영림원소프트랩
기업문화 혁신
컨퍼런스
경영을 더 잘하게
기업문화 혁신 앱 개발 플랫폼의 확장
기업문화 혁신을 위한 경영을 더 잘하게 하는 제 2의 플랫폼으로!

2023 영림원소프트랩
기업문화 혁신
컨퍼런스
경영을 더 잘하게
기업문화 혁신 앱 개발 플랫폼의 확장
기업문화 혁신을 위한 경영을 더 잘하게 하는 제 2의 플랫폼으로!

경영을 더 잘하게



2023 영림원소프트랩기업문화 혁신 컨퍼런스

(주)영림원소프트랩은 일본과 인도네시아에는 법인을 베트남에는 파트너사를 두고 글로벌 시장 비즈니스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 법인 이외에 아직 해외 시장에서의 본격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지만 이제 제품의 현지화와 Reference(참조 고객)확보는 마친 상태라 할 수 있고, 좋은 파트너들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계라 할 수 있다.

슈와는 거리가 멀다. 돈의 가치, 인생의 권태로움같이 '전혀 돈 안 되는' 주제를 다룬다. 그 과정에서 직원들은 자신을 돌아보고 나와 다른 타인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기회를 가진다. 분기별로 전 직원이 회사의 상황과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테크노데이'도 소통의 일환이다.

**(주)영림원소프트랩의
가능성, 비전과 강점**

(주)영림원소프트랩의 글로벌 시장에서 강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작은 프로세스 단위로 기존 프로그램의 수정없이 레고블럭식으로 떼었다 붙였다 하면서 다양한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별 클라우드 서비스를 완성한 기술력이다. SAP 같은 세계적인 ERP 기업도 벤더가 산업별 ERP를 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큰 파트너들이 동일한 산업 분야의 고객을 여럿 구축한 결과 특정 산업 분야의 템플릿을 갖추고 있는 정도의 실정이다.

(주)영림원소프트랩의 산업별 ERP 모델은 고객의 초기 도입 비용에 대한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도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내재적으로 글로벌 환경에 바로 맞추어 쓸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다. ERP 용어 사전만 작성해 넣으면 해당 국가의 언어로 사용이 가능하고, 환율, 단위, 세율 등을 설정에 따라 바꿔 쓸 수 있다.

또한 ERP 기능 중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관리회계 기능 즉 품목별 손익, 거래처별 손익, 부서별 손익 등을 분석해서 경영에 반영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었다. 이

런 구조와 기능을 갖춘 ERP는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것이다. 이웃 일본에도 이것을 갖춘 ERP 회사가 없다.

“ERP 시장이 이제 성숙화 된 것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근 저희 신규 고객의 95% 이상이 다른 ERP를 사용했던 기업들입니다. 그 말은 제대로 된 ERP를 쓰지 않으면 프로세스 단절이나 정보의 왜곡 등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ERP를 쓰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주)영림원소프트랩 연혁

- 1993. 5 영림원소프트랩 법인 설립
- 1997. 9 국내 최초 한국형 ERP 패키지 'K-System' 발표
- 2000. 4 3Tier 구조 신제품 'K-System 2000' 발표
- 2004. 11 닷넷 기반 신제품 'K-System G&I' 발표
- 2009. 1 SOA 기반 신제품 'K-System Genuine' 발표
- 2015. 6 클라우드 SaaS ERP 신제품 'SystemEver' 발표
- 2017. 6 일본 도쿄 현지법인 'EverJapan' 설립
- 2018. 11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현지사무소 설립
- 2019. 5 경영분석모델 통합 ERP 신제품 'K-System Ace' 발표
- 2020. 8 코스닥 시장 신규 등록
- 2021. 5 비영리관리 'SystemEver NPO', 근태/급여관리 'EverTime'/'EverPayroll' 발표
- 2022. 5 PT System Ever Indonesia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설립
- 2023. 9 창립 30주년 기념 기업문화 혁신 콘퍼런스 개최

쓰고 있다. 앞으로 (주)영림원소프트랩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춰 또 한발 앞서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플랫폼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 회사의 비전은 ‘4-Ace 달성’입니다. ‘매출 1천억 원, 평균연봉 1억 원, 주가 10만 원, 아시아 No.1 ERP’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저는 창립 때부터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하여 국선도 수련을 통해 정신과 마음을 맑게 하고, 집중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하체의 근육을 보강하기 위해 매주 낚산에 오르고 있어요.” 권 대표는 기업의 비전을 제시하며 지난 30년은 100년 기업으로 갈 수 있는 밑바탕을 마련한 것이라고 회상하며, 믿고 의지해주는 많은 고객에게 영원한 안식처가 되기를 꿈꾸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 국내의 대표를 넘어서 세계무대로 도약할 (주)영림원소프트랩의 행보를 기대한다.

**‘문화가 강한 기업’
(주)영림원소프트랩**

“제 경영 철학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럽습니다만, 저는 인간은 누구나 다 대단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만 그것이 왜곡되고 억압되어 있기에 그것을 깨우쳐 자기의 삶을 주도적으로 발전시켜 가면 그것이 모여서 회사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 직원들과 매년 독서토론회를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간은 무엇인지, 무엇이 더 중요한 삶인지 등을 생각해보고, 자신에게 새로운 다짐을 할 수 있는 자극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영림원소프트랩이 지향하는 ‘문화가 강한 기업’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권 대표는 매주 한번 4시간씩 약 20명의 직원들과 팀을 이뤄 독서토론회를 하는 ‘영웨이 독서토론회’를 가진다. 귀중한 업무시간을 쪼개서 하지만 소재는 챗GPT, 메타버스 같은 기술이

(주)영림원소프트랩이 지향하는 '문화가 강한 기업'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권 대표는 매주 한 번 4시간씩 약 20명의 직원들과 팀을 이뤄 독서토론을 하는 '영웨이 독서토론회'를 가진다. 귀중한 업무시간을 쪼개서 하지만 소재는 챗GPT, 메타버스 같은 기술 이슈와는 거리가 멀다. 돈의 가치, 인생의 권태로움같이 '전혀 돈 안 되는' 주제를 다룬다. 그 과정에서 직원들은 자신을 돌아보고 나와 다른 타인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기회를 가진다. 분기별로 전 직원이 회사의 상황과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테크노데이'도 소통의 일환이다.

세상의 변화가 빠르고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는 시장에 서는 어떤 사업을 불문하고 심지어는 공공분야까지 제대로 된 ERP에 대한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우리 회사의 성장은 앞으로도 꾸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한편 (주)영림원소프트랩은 일본과 인도네시아에는 법인을 베트남에는 파트너사를 두고 글로벌 시장 비즈니스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 법인 이외에 아직 해외 시장에서의 본격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지만 이제 제품의 현지화와 Reference(참조 고객)확보는 마친 상태라 할 수 있고, 좋은 파트너들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계라 할 수 있다.

“(주)영림원소프트랩의 비전이 아시아 No.1 ERP 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제가 CEO로 재직 중엔 한 자문화권의 아시아에서 1등을 이루겠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아시아 일등으로 가기 위한 교두보가 일본에서 성공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행히 일본에 우리만큼 잘 하는 ERP 회사가 없습니다. 일본의 문화와 비즈니스 관행을 극복하고 우리 ERP를 널리 팔고 컨설팅해 줄 수 있는 좋은 파트너들을 확보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 경영에 대한 환기

‘경영을 더 잘하게 하는 제2의 플랫폼’

(주)영림원소프트랩이 지난 2023 기업문화 혁신 컨퍼

런스를 통해 새 플랫폼과 신제품 3종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대변혁의 시대에 경영의 본질은 다양한 구성원이 시너지를 내어 경쟁우위 전략과 실행시스템을 통해 올바른 일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개인의 시대가 도래한 작금, 기업은 기존과는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의 사고전환이 필요하며 그 시작은 현 시대에 맞는 혁신 도구를 활용해 건강한 기업문화를 창조하고 가꾸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플렉스튜디오(Flexstudio) 2.0은 기존에 발표된 플렉스튜디오 1.0의 경우 IT솔루션 및 개발사를 대상으로 부족한 리소스로도 기업용 모바일 앱을 경쟁력 있게 만들 수 있도록 로우코드를 지원했다면, 플렉스튜디오 2.0은 AI자동생성 기능을 더해 IT전문인력이 전무한 일반기업에서도 모바일 앱 개발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돕는 ‘앱 스마트팩토리’라고 볼 수 있다.

또 에버레스크(EverAsk)는 익명성을 보장해 참여도를 높이고 새로운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임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질문을 찾는 콘테스트 기능과 다양한 유형의 설문을 제공하며 최고경영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는다.

에버런(EverOnOne)은 여러가지 앱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한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데이터 중앙화와 원클릭 이동 기능을 지원한다. 반복적인 로그인과 검색, 조회 루틴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간편한 인증절





2023 영림원소프트랩기업문화 혁신 컨퍼런스, 이벤트 현장(왼쪽) 플렉스튜디오2.0 시연 현장(오른쪽)



2023 영림원소프트랩기업문화 혁신 컨퍼런스, 기자간담회 현장



차로 쉽고 빠르게 앱을 연결할 수 있다. 변화가 가속되고 예측이 어려워지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기업들은 그 어느 때보다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태도를 지닌 인재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각 산업의 경계가 허물어지며 기술의 융복합이 수시로 발생하는 시대에 필요한 인재는 영역을 뛰어넘어 생각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주저없이 실험해 볼 수 있는 도전적인 사람이다. 보통 대부분의 기업이 내세우는 조직문화의 가치가 ‘일’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 반면, (주)영림원소프트랩 가치는 ‘사람’에 중심으로 두고 있다. (주)영림원소프트랩이 무엇보다 인재를 중시하고 존중하며, 좋은 회사를 지향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내부만족이 곧 고객만족”
글로벌 인재확보에 속도

현재 (주)영림원소프트랩이 회사 발전을 위해 다양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다양한 인재의 확보입니다. 좋은 인력을 뽑는 것 못지 않게 그 인재가 자신의 잠재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좋은 급여와 복지 혜택 등의 보조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들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꽃을 피울 수 있는 기업문화를 이루는 일이 21세기에 더 중요한 경영자의 임무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권영범 대표이사는 내부만족이 고객만족으로 이어진다고 확신한다. “직원들에게 제가 먼저 오픈마인드로 다가갔습니다. 그래야 직원들도 마음을 연다고 믿었고, 한 번 말한 것은 반드시 책임지려 노력했지요.”

(주)영림원소프트랩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실천으로 장학금 외에도 진로 및 고민 상담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문화 체험 학습 등을 통해 학생들의 정서적 함양도 돕고 있다. 또 매년 어린이날과 크리스마스 때면 서울 강서·경기 파주 지역 보육원 아이들에게 선물과 편지를 전달한다. 지역 복지관과 연계된 김장·연탄 봉사도 꾸준히 진행해 왔다. 이와함께 은퇴자를 대상으로 ‘시니어 컨설턴트’를 양성하고, 비전공자 대상 ERP 엔지니어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채용 과정에서 지속 가능 경영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주)영림원소프트랩의 직원들 표정은 유독 밝고 여유로웠다. “사내 분위기는 자유롭습니다. 직원들이 제 역할에 충실하니 가능하지요. 거래처에서 업무로 클레임을 걸지 않으면 직원들을 질타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찬사와 칭찬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 같은 돈독한 신뢰 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지요.” 직원사랑이 지극한 권 대표는 자랑에 여념이 없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IT인력들입니다. 지금도 얼핏 비슷한 솔루션들이 출시되는데, 모양은 비슷하지만 설계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획기적이고 완벽한 기술을 구현하고, 빈틈없이 유지하고, 끊임없이 연구하는 자세를 갖춘 최고의 개발자, 엔지니어들입니다.” 일당백 기술력뿐 아니라 인성에 대한 찬사도 이어졌다. “책임감이 대단합니다. 독특한 개성을 지닌 개발자들이 많은데, (주)영림원소프트랩 직원들은 주변을 돌볼 줄 알고 배려할 줄 아는 멋진 엔지니어들이지요.” 심지어 직원들에게 권 대표는 형님 같은 무한한 신뢰를 얻고 있다. 서로 “평생 함께 가고 싶다”는 마음을 비칠 정도로 끈끈한 의리파들이다. “직원들의 열정이 대단하니, CEO로서 벼림목이 되고 싶습니다. 서로 강한 믿음이 있었기에 치열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주)영림원소프트랩의 복리후생은 동종업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견고하다. 웬만한 대기업과 비교해도 아쉽지 않다.

“직원들이 회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야 뛰어난 솔루션이 개발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는 작지만 S기업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만큼 이윤을 창출해 그 이상으로 함께 누리자고 의기투합합니다. 일등기업을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일등기업으로 체질을 개선하자는 주의지요.” 현대 직장인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를 꼽으라면 아마 회사가 1, 2위를 다툴 것이며, 회사에서 함께하는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낸다. 결국 어떤 직원이 직장에서 행복할 수 있다면 그의 삶이 행복할 가능성은 매우 커지는 것이다. (주)영림원소프트랩은 직장에서의 행복이란 직원이 일을 통한 성장에 만족하고 본인이 속한 조직에 대해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때 느낄 수 있다고 본다. (주)영림원소프트랩의 리더들은 구성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미션과 책무를 가지고 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과감하게 펼칠 수 있는 (주)영림원소프트랩의 비전을 한 방향으로 모으고 실행하게 하는 소통의 과정에서 구성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이다. (주)영림원소프트랩은 지향하는 핵심가치가 얼마나 조직과 구성원에게 체계화되고 일하는 문화로 정착되는지가 앞으로 (주)영림원소프트랩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요인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주)영림원소프트랩의 핵심가치를 동력으로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미래의 모습을 기대하게 된다.



2023년 11월 일본 오사카에서 진행된 30주년 기념행사



영림원소프트랩권영범대표(가운데)와 임직원들

‘신뢰를 바탕으로, 목적을 중시하며, 주도적인 삶을 살자’

권영범 대표이사의 궁극적인 꿈은 무엇일까. “미래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고객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의 문화 혁신을 책임지며, 나누는 삶이 목표입니다. ‘영림원일프로(1%)클럽’이라는 장학재단을 세워 2005년부터 가정 형편이 어려운 중·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오고 있다. 지원금은 임직원들이 매월 급여의 1%를 모아 마련한다. 19년간 363명의 중·고등학생들이 매월 3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주)영림원소프트랩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실천으로 장학금 외에도 진로 및 고민 상담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문화 체험 학습 등을 통해 학생들의 정서적 함양도 돕고 있다. 또 매년 어린이날과 크리스마스 때면 서울 강서·경기 파주 지역 보육원 아이들에게 선물과 편지를 전달한다. 지역 복지관과 연계된 김장·연탄 봉사도 꾸준히 진행해 왔다. 권 대표는 궁극적으로는 더 많이 벌어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한다. “(주)영림원소프트랩은 은퇴자를 대상으로 ‘시니어 컨설턴트’를 양성하고, 비전공자 대상 ERP 엔지니어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채용 과정에서 지속 가능한 경영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현재 2남을 둔 권 대표는 집에서는 평범한 가장이라고 소개했지만, 일관된 삶의 자세와 열정으로 가족들에게 자부심이 된 지 오래다. “자식들은 분가하고 둘만 있는데, 집사람이 한 10년 전부터 취미로 시작해 사진작가로 활동중이다. 현재 다섯 번째 개인전을 열고 있습니다. 평소 서재에서 책 보는 걸로 시간을 보내거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주말에는 애들이랑 모여서 식사와 대화의 시간을 즐깁니다. 어렸을때부터 아이들과 함께한 것이 이제 같이 모이면 않으면 이상할 정도다. 그것이 집에서의 이벤트입니다. 요새는 술이 제일 센 며느리가 들어와 며느리하고 술 친구하고 있습니다.” (웃음) 권영범 대표이사가 치열한 삶 속에서도 여유와 즐거움을 잃지 않는 긍정적 자세는 현장중심 철학과 함께 곧 인생관이기도 하다. “리더가 되면 사상과 경영 철학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경영은 경험과 데이터에 의존하고 관리자나 전문가와 상의해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불확실한 사안, 책임지기 어려운 일, 위기 순간의 결정은 리더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정은 결국 리더의 생각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가치관과 철학에 따라 좌우됩니다” 권 대표는 후배들에게 로드맵을 알려주고 필요한 역량을 미리 준비하라고 이야기한다. 현재 위치, 미래 방

(주)영림원소프트랩은 Flexstudio 2.0, EverAsk 등 기업 경영과 기업문화를 돕는 플랫폼을 출시하고, 2023년 8월에는 AI 혁신 콘퍼런스를 개최하면서 신제품 ‘K-System AI’를 선보이는 등 혁신적인 기업 문화, 미래 경영에 대한 환기를 일으키며, 다방면으로 기업 경영을 위해 힘쓰고 있다. 앞으로 (주)영림원소프트랩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춰 또 한발 앞서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플랫폼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 목표 등을 그려보고 구간별로 필요한 역량을 확인한 후 찾아서 공부해야 할 것이다. 이 역량들은 각 구간을 거쳐 가면서 하나씩 축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일 새벽 운동과 함께 ‘국선도 하는 CEO’

“건강관리를 위해 지금도 국선도 수련을 하고 근력이 있어야 한다기에 최근에는 걷는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영범 대표이사와 국선도의 만남은 19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권 대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시스템공학 센터 선임연구원을 거쳐 입사한 큐닉스데이터시스템에서 소프트웨어(SW)사업주장으로 맡으면서 대한페이팅크의 전산시스템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막 끝냈을 때였다. 1년 6개월 동안 휴일없이 프로젝트에만 매달려 살다보니 그의 체력과 정신력은 모두 고갈된 상태였다고 한다. 그때 국선도 수련과 인연을 만나게 되었다고 한다. 국선도 수련으로 건강에 자신감이 붙은 권 대표는 창업할 용기도 생겼다고 한다. “수련으로 몸이 좋아지니까 새로운 도전을 해야겠다는 의식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동료들과 의기투합해서 (주)영림원소프트랩을 창업했습니다.” 권 대표가 꼽는 국선도의 최대 장점은 ‘집중력’, “한 호흡을 처음에는 10초씩 하다가 늘려 1분 정도를 하죠.

여기에 고난이도 자세를 취하려면 정신집중이 필수죠. 이를 통해 기가 쌓이고 몸과 마음이 모두 좋아지죠. 공부 잘 하는 아이들이 집중력이 좋듯이 커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국선도 사랑이 남다른 권 대표는 주변사람들에게 국선도를 권할 것이냐는 질문에 단호하게 ‘NO’라고 답했다. “국선도는 사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정말 인내력이 있어야 재미를 붙일 수 있는데 집사람을 비롯해서 몇 번 주변에 권해봤는데 다들 며칠 못가

(주)영림원소프트랩의 특징점

Step.1 탄탄한 입지, 미래지향적인 비전

30년 동안 굳건히 ERP 시장을 개척하고 AI를 접목한 ERP 등 미래지향적인 제품 개발에 적극적인 투자

Step.2 아시아 No.1을 목표로 전진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 법인 및 현지사무소를 설립하여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

Step.3 수평적·탈권위적 기업문화

회사 내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지향하며 직원의 성장을 위해 영웨이(永-WAY)협의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더라고요. 도장다닐 때도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거의 없었죠.”

매일 아침 도장에 가서 수련하고 출근했는데, 이사를 오고 나서는 집무실 옆에 1.5평 정도의 수련실을 마련하고 7시 전에 회사에 출근해 국선도 수련을 하고 하루를 시작한다.

“ROTC 네트워크 변화를 위해 젊은 세대들과의 소통·자부심 필요”

“장교로서의 자부심 그리고 젊은 시절에 작은 리더십을 바탕으로 사회에 이바지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ROTC출신들이 최고경영자를 비롯해 민·관·군·사회 모든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최근 학령인구와 징집인구가 동시에 급감했다. 그리고 병사들과 급여가 크게 차이 나지 않고 복무기간도 1년정도 길기 때문에 장교지원률이 떨어지고 있다. ROTC는 우리 군 초급장교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같은 현상은 군에도 큰 위기로 보여진다.

특히, ROTC는 장교출신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감과, 개인의 이익보다 조직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봉사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보는데, 개인의 삶이나 워라벨을 중시하는 MZ세대들의 특징과는 거리가 있다.

이 세대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소통방안과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한 시기다.

기존 ROTC선배들도 후보생 시절과 군복무기간의 어려움은 있지만, 인생 전체를 보면 그 기간을 짧은 순간으로 여기고 어려움을 이겨낸다. 그리고 그때의 경험으로 평생을 멋지게 살아간다. 이런 부분을 아직 겪어보지 않은 젊은 세대들에게 잘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면 ROTC 네트워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2024년을 맞이해 창설 63주년을 바라보는 ROTC와 23만 동문 리더스월드 독자들에게 한



마디 남겼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 안보를 위해 전후방 각지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학군장교를 비롯한 국군 장병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각계각층에서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해 활약하고 있는 ROTC동문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특히 올해는 학군사관후보생 창단 63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러분이 있어서 든든하다.”

ROTC가 있기에 대한민국 군이 유지되고, 전국 23만 ROTC동문이 있기에 대한민국 사회가 운영된다고 생각한다. 조직의 최상층도 중요하지만 허리에 해당하는 중간관리자 역할의 중요성도 못지않다. 앞으로도 국가와 사회를 위해 많은 활약 기대하겠다.

꿈과 열정, 도전정신으로 국내 최고 ‘ERP 선구자’로 활약 중인 권영범 대표이사.

(주)영림원소프트랩에서 ‘100년 장수 기업’으로 밑그림을 그리고 화룡점정을 찍고 있는 그의 모습에서 ERP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의 희망을 읽을 수 있었다. 대한민국 발전의 숨은 조력자, AI ERP 대표주자를 꿈꾸는 권영범 대표이사의 행보에 주목하며 2024년도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Lw**